

사이타마 새 주교의 메시지
야마노우찌 미찌야끼 마리오 S.D.B.



주교서품 2018년 9월 24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제 3 봉헌문)

1.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인사처럼,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축복을 보냅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사이타마 주교로서 보내는 첫 편지로서, 저의 62년의 인생을 통해, 생명의 주님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저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 안에 육화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인사처럼,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축복을 보냅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사이타마 주교로서 보내는 첫 편지로서, 저의 62년의 인생을 통해, 생명의 주님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저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 안에 육화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33년간(1964-1997)을 함께 지낸 아르헨티나의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스페인어는 아르헨티나 산악지대와 평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유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나눔을 다국어 번역으로 읽는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2. 길을 나서면서 모양새가 만들어진 인생
인생에는 의미를 부여하며 방향을 잡는 여행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길을 열고, 몇 번씩이나 길을 나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초로 길을 나선 것은 1964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8살이었고, 부모님께서 저와 네 명의 남동생들(막내는 한 살이 넘는 상태였습니다)을 데리고, 일본의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길 나섬은 1997년, 1년간의 예정으로 일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1년을 예정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글썄 그로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길 나섬은 지금부터 시작되려고 합니다. 살레시오 수도회 출신의 주교로서, 살레시오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의 보다 넓은 광장으로 보내지려 하고 있습니다. 겁도 나지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1. 최초의 길 나섬 :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창세기 12,1)

사제 서품은 1984년 12월 21일에, 아르헨티나의 산 후안(성 요한)에서 받았습니다. 사제가 된 후의 긴 여정 안에서, 저는 카를로스 메스테레스가 지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작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브라질의 까르멜 수도 선교사입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왜 이주를 했던가, 특히, 일본이 제법 안정되어가던 시기였음에도, 왜 아버지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는 등의 무모한 모험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반대가 있을 때, 이탈리아 사람인 선교사 돈 체살레 세끼만이 “만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보호하심을 믿으시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몇 번이고 털어놓으셨던 일, 특히 저희 가족이 두 번째로 옮겨 살던 ‘비라 메디아 아구아’에서 보낸 어두운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아콘까구아의 산 정상에 포함 안데스 산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신앙이 깊은 분이시다.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힘을 나는 믿고 있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하며, 너희를 키우고자 하는 꿈을 신뢰하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느님의 꿈이기도 해.”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도 먼 곳에 이주하도록 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 취한 행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12,1) 그래서, 아주 큰 유토피아적 이상을 가지고, 저희는 1964년5월31일 고베항으로부터 길을 떠났고, 요코하마,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같은 해 7월21일에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도중, 파나마 운하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등의 연안 항로를 거쳐 갔습니다.

마페킨 (꼬르도바 1984-1991)

저는 1984년 12월 21일에, 산 후안의 주교좌 대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교리교사로서 미카엘 루아의 수련기를 마친 이들의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매주말 마페킨이라고 하는 성 요한 보스코 본당의 근처를 다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성당이 없었지만, 교장 선생의 배려로 저희는 교실과 학교의 마당을 사용하며 교리공부를 지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목자임을 배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추억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기도와 간식, 마당에서의 미사나, 그곳에 모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바깥에서 미사를 드리고, 근처의 도로나 개인의 집 앞에 행렬을 했던 일, 집 앞에 제단을 만들었던 일. 어떤 때는 당나귀가 도망가버려 말을 타고 행렬을 했던 것 등. 루르도를 위해, 또한 성당을 위해서, 여기저기 토지를 기부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적어도 35살에서 50세가 되었을 당시의 소년들, 이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당시 사람들의 성함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모두 저의 부모님이며, 좋은 형제자매며 아들딸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마페킨에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을 하며, 루르드 성모상 앞에서는 성모송을 함께 봉헌하고, '나자렛 마리아' 공동체의 시작에 환호성을 함께 지를 수 있다면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그리고 그 명단을 만들어준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미사들 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바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이타마 교구에는 오성 호텔을 없습디만, 수천개의 별을 단 집이 있으므로

어떻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정어리 통조림처럼 되어도, 살레시오 회원에게 침랑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교구는 열린 집이 되고 싶습니다. 창에 망이 있으면 모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모기에 물리면 아르헨티나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이타마를 사랑하는 군에 감염된 것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분이라도 대환영합니다.

'라 플라타' 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1- 1997)

1991년 중순경, 저는 코르도바에서 라 플라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던 아르헨티나의 살레시오 관구와 파라과이 관구(6관구)의 관구장들은, 수련장이었던 어거스틴 라드리짜니 신부가 몬시뇰 하이메 데 네바레스 주교의 후임으로 '네우겐'의 주교로 임명이 되었기에, 어거스틴 신부의 후임으로 내가 적합하다고 여기고 그곳으로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저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전 지원원이었던 곳에 있는 라모스 메히야로 이동해서, 수련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호세 베스피그냐니 하우스 안에 있었고, 월프리 바론 스쿨 옆에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1949년에 6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중순경,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이것이다 할 정도로 확실한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1986년에는 아르헨티나에 귀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고국 일본에 간다고 해도 1년만, 즉 '휴가의 해'의 기간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2 두 번째의 길 나섬: 아르헨티나에서 일본으로 귀환

두 번째의 길 나섬은 1997년 2월27일, 아르헨티나의 국적인 채로 일본에 귀국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42살이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첫 걸음은, '일본인의 얼굴을 한 아르헨티나인'으로서였습니다. 일본인 얼굴을 하고, 지극히 서툰 일본어를 말하는 저에게 당황하는 일본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인생의 부분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천천히 사라져가는 두 번째 자기 통합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의 오이따 교구에서 체재기간을 다해 가고 있을 때, 저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모두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주었고, 1년이 지나서, 저는 3년간의 일본 체재 비자를 이민국에 취득하였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 자신이 놓여져있을 때, 저는 안토니오 마차도가 쓴 '걷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 진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쓰여 있는 인도 선교사 카를로스

곤잘레스 발레스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 마리스트 홀에서 그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걸음으로써 길이 만들어지네, 지금을 사는 예술! 일본에서의 체재는 어느새 20년을 넘게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도 여러 아르헨티나 작가의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자신 안의 깊은 울림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마메르또 메나파세 카스테야니, 아타울파 레오폴도 마레찰, 그리고 '신앙이 이해를 구한다'라는 논문을 쓴 호세 R. 빠레스와 같은 이들의 논문등을 읽었고, 또한 에드와르도 팔루의 기타 음악이나, 아스트로 피아쥬야의 반도네온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 중, 에티에네 길손의 '조직적 현실중의', 로마노 가르디니의 '현대의 끝', 본 발타사르의 '오직 사랑만이 신앙의 가치', 칼 라너의 영적 저서인 '라짱거 리포트', E 실레베크스의 소책자 '그리스도, 하느님과 만남인 성사', A 놀란의 '오늘의 예수' 등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또한, 일본어를 스페인어로 번역된 일본인 작가의 저서, 소설, 이야기, 수필 등을 읽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욕심을 내며 마구 읽었습니다. 엔도우 슈샤쿠를 시작으로 해서, 오에 겐자부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 나쓰메 소세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다카야마 우콘의 시복을 계기로 16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대항해시대, 일본은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고있는 에세이를 손에 넣은 것 등, 대단한 것들이지만, 불행히도 저는 그 원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2-3 세 번째 길 나섬: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 (교황 프란치스코)

며칠 전, 로마 교황대사 요셉 체노스 대주교에게 불러졌을 때, 대사의 형제의 가족이, 바로 전 주에 케랄라에서 왔을 때와 같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돌봐 달라는 부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늘 그러했듯이 미소를 지으시며 살레시오 수도회의 일본관구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제편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사께서는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당신을 사이타마 교구의 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은 2013년 중순부터 따니주교님의 사임에 의해 공석이 되어있고, 오까다 대주교님께서 교구의 관리자로서 수고를 하고 계셨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오늘의 미사

중에 읽었던 복음을 근거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사께서는 두 번씩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장의 백지를 주시면서, 교황님께 임명에 대해 수락 편지를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대사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저는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다행이도 정원이 보이는 창이 셔터가 열려 있었고, 그 창 바깥으로 그리스도인의 협력자이신 성 마리아상이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도 치쁘리아니 신부가 관구장이 재무담당이었을 때 기증했던 성모상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향해, 저는 모든 신뢰를 가지고, 가호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황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대사께서는 10분 후에, 제가 수락하고 서명한 편지를 받으러 오셨고, 로마에 그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교황님!]

저는 1984년, 어린시절에 아르헨티나에 이주한 돈 보스코의 일개 자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1986년에 아르헨티나에 귀화했습니다. 저는 1992년 이후, 라모스 메히아에 있었으므로, 교황님의 성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리니에르스의 산 까예따노에 매년 8월7일에 대주교님으로서 오셨을 때 등,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성지에 일을 구하고자 기도하러 온 많은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2014년4월20일에 귀천한 산 카를로스의 주임 사제였던 호세 레브브즈 신부와 수려원 동기였으므로, 그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까예따노 브르노 신부에게 보내신 몇 통의 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눔의 내용은 교황님과 대화였고, 전세계에 교황님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회의 주교직에 전혀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축복을 해주신다면, 주교로서의 업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 저에게 있어서 광대하고 멋진, 그러나 미지의 파일입니다.

살레시오회는 지금까지 도쿄보다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이타마 교구에는 살레시오회의 활동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졸업생이나 살레시오회의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사이타마, 군마, 도찌기, 이바라끼를

포함하는 사이타마 교구내에 산적이 없습니다. 이 네 개의 현의 전체 인구는 1400만명을 좀 넘어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수는 21,593명이므로, 전면적23,647 평방 킬로미터 안에, 가톨릭 신자는 인구의 약 0.15 퍼센트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교구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그 숫자가 10만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불교, 신도(神道)등, 타종교의 신자 중,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자비를 갖고, 곤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타마 교구는 217명의 봉헌생활자(사제, 종신부제, 신학생, 수도사와 수도자)가 있습니다. 봉사생활자나 신도들의 국적은 다양합니다. 일본인, 한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페루인, 미국인, 인도네시아인 등.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이 현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연수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갖고,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기대하며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다양한 곤란이나 고통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이나 고령자, 가정이나 학교등에서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마리아적 교회여야만 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 교구에는 11개의 블록에 54개의 교회, 51명의 사제와 5명의 종신부제가 있습니다. 남자수도회가 네 개, 여자수도회가 17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녀수도원수는 27개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교구에는 19개의 유치원과 보육원, 사립 중고등학교가 네 개, 아동복지 시설이 다섯 개, 노인 시설 두 개와 피정의 집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저의 취임 1년 안의 바람은, 모든 본당과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교회, 모든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이름과 얼굴을 빨리 외우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기도와 순례의 장소인 절이나 자연에도 마을에도 깊게 스며 들어있는 신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 교회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것들은 모두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로서, 의심없이 나누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종교적, 윤리적인 부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교구내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도 있습니다. 츠크바우주 센터가 있는 츠크바시, 세계를 놀라게 한 전자 시스템 창조 심볼인 히따찌 제작소가 있는 히따찌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순례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신사

또우쇼우구우(東照宮)가 있는 니코시 등입니다.

4. 결론: 신앙인의 공동체로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대사와의 이야기 중에, 대사께서 강조하신 몇 가지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타마 교구에는 전 신도의 약 75%, 혹은 그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20년, 혹은 그 이상 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리점등을 통해서 3년에서 5년 계약의 연수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예언자적으로 교구를 풍요롭게 만들어 오신 수도회가, 국내외에 새로운 소명을 구하는 카리스마의 활성화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국내외에서 교구를 예언자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구장의 인도와 권위하에, 교회운동과의 대화와 공생하는 것도 또한 커다란 과제입니다. 다양화된 멤버가 교구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시간은 공간을 뛰어넘는다'(복음의 기쁨 222)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역설하셨듯이, 지리적으로 폭넓은 이 교구라는 필드에, 하느님으로부터의 시간의 신호를 식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사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를 몰랐던 세계에 있어서, 기쁨을 지닌 증인이었듯이,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의 증거를 떠올리도록 합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행전2,42-47)

교회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악의 힘으로부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그녀의 정배이신 성 요셉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들, 젊은이,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